

책으로 벗기는 백남준예술의 비밀

회갑기념 전시회 개최 때맞춰 관련책자 출간 잇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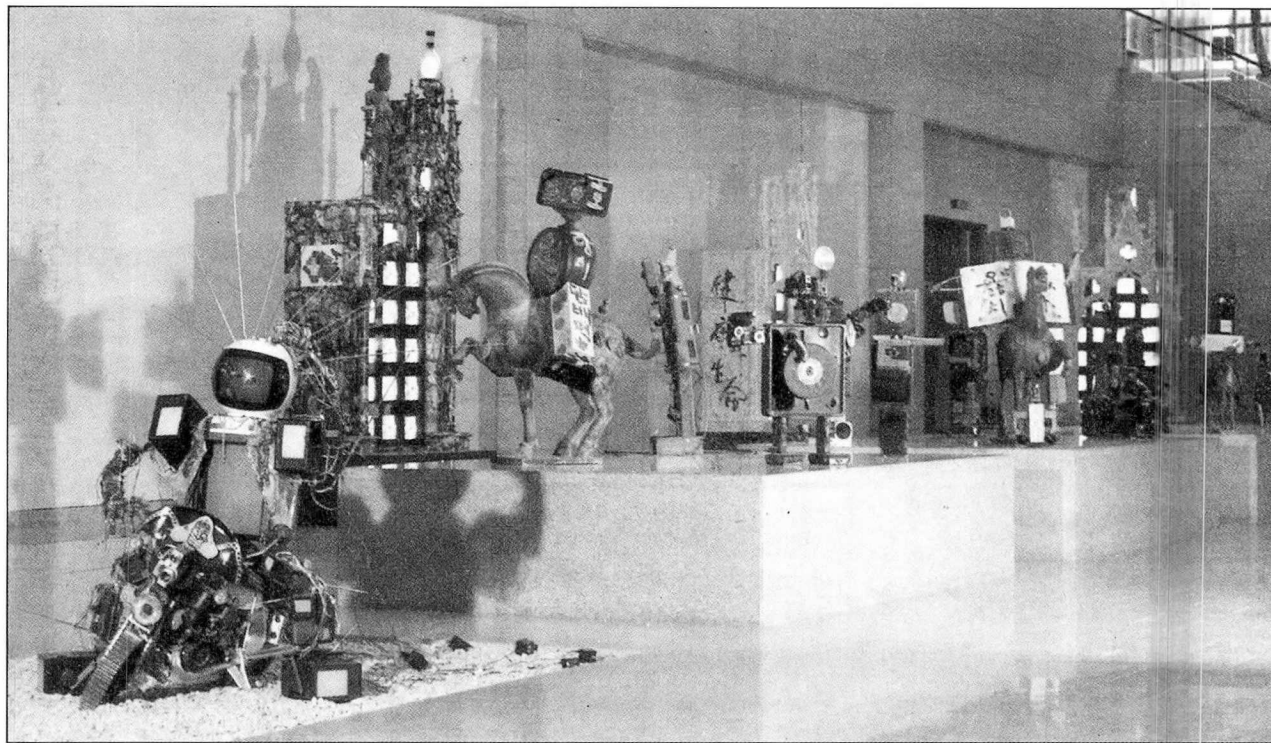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회갑을 기념하는 대규모 회고전이 국립현대미술관 등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백남준 예술의 진면목을 밝히는 책 3종이 거의 동시에 선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백남준·비디오매·비디오땅」(API), 「백남준과 그의 예술」(디자인하우스), 「白南準」(삼성출판사)이 그것으로 이 책들은, 1984년 신년벽두의 텔레비전 위성중계로 신선한 충격을 체험케 했던 「굿모닝 미스터 오웰」 이외에는 일반인들에게 여전히 낯선 백남준과 그의 예술을 다각도로 조명해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전시회 개최에 맞춰 간행된 「특출출판물」의 성격이 짙긴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가장 코스모폴리탄적인 예술가로 꼽히는 백남준의 온전한 이해를 비로소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이 책들의 발간은 오히려 뒤늦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백남준·비디오매·비디오땅」

이 가운데 「백남준·비디오매·비디오땅」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백남준 회고전 공식 카탈로그로 제작된 책. 그러나 여느 평범한 전시회 도록과는 달리 백남준예술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 및 백남준 자신의 글들이 풍부한 사진도판과 함께 실려 있어 실속있는 참고문헌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동서양의 역사와 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예술과 결합시키는 과학적 탐구자세” 등으로 “지구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의 모든 경계를 넘나들면서 각 경계마다의 가치와 특성을 와해시킴 없이 그들을 화해”시키는 백남준예술의 “우주적 외교사도”로서의 면모를 지적하는 임영방(국립현대미술관장)의 머리말을 필두로 국내 연구자들의 글은 모두 4편이 수록돼 있다. 「백남준의 黃禍論」(유준상), 「백남준과 韓國美」(이용우), 「백남준 비디오, 비디오 理想, 비디오 理念」(김홍희), 「지구촌의 커뮤니케이션 안테나」(강태희) 등이 그것들. 이와함께 흥미를 끄는 것이 백남준의 개인적 면모를 엿볼 수 있는 知인들의 회고담으로, 경기중학 시절의 은사였던 안병욱의 「행복한 만남, 16세의 귀재 소년」을 비롯해 어릴적 동네친구 이경희의 「왕자와 공주」, 경기중학 동창 서재웅의 「중학시절 백남준」이 실려 있다.

백남준 자신의 글로는 「동양전통 내에서의



1992년작 「이미 라이더」와 「로봇행진」(API 사진).

첨단기술과 첨단예술」 등이 실려 있으며, 그밖에 데이비드 로스(휘트니미술관장) 헤르조겐라츠(베를린미술관 큐레이터) 크리스틴 반아쉬(포퍼두센터 큐레이터) 존 한하르트(휘트니미술관 큐레이터) 등 외국의 쟁쟁한 이론가들의 논문이 각 한편씩 수록돼 있어 백남준예술의 코스모폴리탄적 성가를 확실히 하고 있다. 권말에는 작품활동 위주의 백남준연보 및 참고문헌목록을 실어 연구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백남준과 그의 예술」

국내연구자로는 백남준예술을 가장 깊이있게 천착해온 것으로 알려진 미술사가 김홍희씨의 「백남준과 그의 예술」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술론에 해당하는 전반부에서는 백남준예술의 이론적 배경을 파헤치고 후반부 부록에서는 그의 예술세계를 이루게 된 삶의 역정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백남준예술의 특징을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관객참여의 예술로 파악하고 그의 예술세계를 이루는 두 축인 해프닝과 비디오아트를 관객참여라는 예술이념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총체적 예술과정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라 제1장은 해프닝을 참여예술로 만드는 미학적 개념들인 「복합매체」와 「비결정성」을 논의하고, 제2장에서는 백남준해프닝

을 성격지우는 「행위음악」과 그가 속했던 「플럭서스 해프닝」의 실체를 파헤치며, 제3장에서는 비디오매체를 「전자매체」 「심리매체」 「대중매체」라는 세가지 특성으로 나누어 각각의 참여적 양상을 고찰하고, 제4장에서는 백남준의 비디오작업을 「텔레비전 설치예술」 「비디오오테이프예술」 「위성중계 공연예술」로 대별하여 그의 참여 텔레비전 수행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후반부 부록은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사진도판과, 그의 생애와 작업의 진전을 보여주는 상세한 연보로 구성돼 있다. 사진도판은 저자 자신의 현장경험이 담긴 생생한 기록 사진을 비롯해 백남준의 교우관계 등을 살필 수 있는 오래된 사진들이 흥미를 끌며, 연보 또한 단순한 연대기적 나열을 피하고 많은 일화와 사건들을 사이사이에 삽입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꼼꼼하고 성실하게 작성된 각주와 참고문헌목록이 특히 큰 도움이 될 만하며, 백남준이 직접 쓴 서문도 이색적이다.

「백남준」

이례적인 형태의 변형판 판형에 모두 300여면에 이르는 화보를 포함하고 있는 미술평론가 이용우씨의 「백남준」은 우선 그 도판수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제까지 나온 백남준 관련책자중 최대규모. 60년대의 흑백사진을 비롯

해 최신작 컬러사진은 물론이고 작곡가로 출발했던 백남준의 악보사진까지 처음으로 공개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저자는 지구촌 곳곳에서 펼친 백남준의 작업을 소개하면서 비디오 조각 설치 프로젝트 등 장르별로 작품을 점검하고 그 원류를 탐색해 나가는데, 특히 서구의 미학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백남준예술의 한국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어 인상적이다. 순수성과 대중성을 화해시키려는 작가의 시도라든지, 「TV 붓다」 같은 작품에서 보듯 후기 산업사회의 상징인 텔레비전과 지혜의 표상인 부처를 카메라 앞에 마주 세움으로써 동서양의 화해와 통합을 시도하는 백남준의 예술관과 세계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으로 꼽힌다.